



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, 국내총생산의 1/4 초과

왕양비 연구원

■ 6월27일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심사기구인 심계원(审计署)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(GDP)의 1/4을 초과했다고 밝힘.

● 이는 중국정부가 최초로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를 공개한 것이며, 중국 심계원에 따르면 2010년 지방정부의 총 부채규모가 GDP의 27%로 10조 7000억 위안(약 1,65조 달러)에 이름.

■ 심계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대출상환은 토지매매 수입에 크게 의지하는데,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토지매매가 위축되어 지방정부의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짐.

● 중국 재정부는 2010년 지방정부의 토지매매 수입이 총 재정수입의 1/3에 달했다고 보고한 한편, 심계원은 토지매매 수입을 담보로 하는 지방정부 대출액이 총 지방정부 부채규모의 23.3%인 3,8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.

● 그러나 올 1~5월 베이징, 상해, 선전 등 대도시의 토지매매 수입이 전년 동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, 전국 토지매매 수입이 전년 동기간보다 1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● 동 심계원 보고에 따르면 78개 도시, 99개 현(縣)급 지방정부의 부채총액이 각 정부의 연간 재정수입을 초과함.

●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대비 채무비율이 52.25%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정부 책임의 담보까지 포함하면 70.45%로 높아짐.

● 지방정부의 대출상환 능력 부족이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일각에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출상환 능력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됨.

■ 중국은 방대한 외환보유액, 낮은 대출금리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밀접한 정치관계 등의 이유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낮지만, 대출금리 인상 시 정부의 상환능력에 큰 압력을 주므로 막대한 정부부채 규모는 금리인상을 통한 당국의 긴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임.

■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, 일각에서는 중국의 실제 부채규모가 공식적 수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,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전체 정부부채가 향후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됨.

-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지방정부의 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부채는 GDP의 17%로 이는 중국정부의 총 부채규모가 GDP의 44%에 달한 수준임.
-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심계원과 재정부가 특정 종류의 정부부채를 총 정부부채의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,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은행들과 철도부 등 국가기관의 부채를 모두 포함할 경우* 지난해 중국 정부부채는 GDP의 82%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함.

* 미국의 정부부채 통계방식이며, 동 방식으로 계산한 2010년 미국 정부부채규모는 13.53조 달러로 GDP의 93%를 차지함.

(중국 재정정보 등 6/28)